

QR코드 스캔 후 3시간내 배송, 그로서란트 매장…

미래형 쇼핑공간 ‘옴니스토어’ 고객 마음 사로잡다

롯데마트 금천점 오픈 한달

QR스캔배송 하루평균 7% 수준
고령층에 ‘배송카드서비스’ 인기
스테이크 등 신선식품 즉석 조리
‘3D홀로그램’ 고객 호기심 자극

롯데마트가 지난 해 오픈 한 ‘스마트 스토어 금천점’의 온-오프라인 옴니 채널 실험이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12월 13일 금천구 독산동에 오픈한 롯데마트 금천점은 롯데그룹이 지난 2016년부터 시행해 온 ‘옴니스토어’를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차세대 스마트 기술과 ‘QR코드 스캔 3시간 배송’ 등 신규 서비스가 도입됐다.

고객들은 매장에 들어서며 ‘M쿠폰앱’을 스캔해 금천점에서 진행하는 행사상품의 시크릿 쿠폰을 받을 수 있고 매장 내 종이 가격표 대신 QR코드가 표시된 ‘전자가격표시기(ESL)/(Electronic Shelf Label)’를 설치해 고객들이 장바구니 없이 QR코드 스캔만으로 쇼핑이 가능



롯데마트 금천점 QR 스캔 쇼핑.

하다.

롯데마트 금천점의 ‘QR코드 스캔 3시간 배송’은 지난 해 11월 롯데마트가 전점의 상품 가격표에 QR코드를 도입한 후 시행한 ‘QR 코드 스캔 쇼핑’을 더욱 발전시킨 형태로, 고객은 매장에서 QR코드를 스캔하고 연동되는 ‘롯데마트몰 앱’으로 결제하면 3시간 내에 상품을 배송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실제로, 롯데마트 금천점 오픈 이후 온라인 배송 중 QR 코드 스캔을 통해 배송되는 비중은 일 평균 7% 수준으로, 금천



롯데마트 금천점 고객 쇼핑 모습.

/롯데쇼핑

점이 위치해 있는 롯데캐슬골드파크 3차 아파트(1236세대)의 입주가 완료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향후 이 비중은 지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금천점의 경우 60대 이상 고객 비중이 높은 상권 특성을 고려해 스마트폰으로 QR 스캔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배려한 ‘배송카드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쌀 등 부피가 크고 무거워 직접 운반하기 힘든 상품군을 중심으로 도입한 ‘배송카드서비스’는 매장에서 배송카드만 가지고 계산대로 가면 결제 및 배송이

가능해 고령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그로서란트 매장은 고객들이 직접 고른 스테이크와 랍스터 등의 신선식품을 매장에서 바로 조리해 제공하고(조리비 별도) 매장 내 휴게 공간에서 바로 취식이 가능한 점과 롯데마트 최초로 매장 17곳(25개)에 설치된 최첨단 ‘3D 홀로그램’ 등이 고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다시 오고 싶은 매장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금천점은 일 평균 7000명 가

량의 고객들이 지속 방문하고 있으며, 그로서란트 매장, ‘QR 스캔 3시간 배송’ 등으로 롯데마트의 타 매장 대비 식품군 매출 비중이 6% 가량 높은 71.5%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김현주 롯데마트 금천점장은 “롯데마트 금천점은 기존 대형마트에서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스마트 기술과, 롯데의 유통 노하우가 접목된 4세대 미래형 종합 쇼핑공간”이라며, “다양한 가치 상품과 차별화된 서비스, 고객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옴니채널을 구현하는 지역 1등 매장으로, 롯데쇼핑 DT의 선봉 매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마트 금천점에는 롯데마트가 P&G와 협력한 ‘무인 추천 대대’와 선명한 화질의 디지털 사이니지(디지털 게시판), 별도 성에 제거 작업이 필요 없는 ‘지능형 쇼케이스’를 비롯해, 영업 시간 종료 후 자동으로 청소하는 ‘인공지능 청소 로봇’, 12대의 무인계산대(SCO/Self-Checkout Operation) 등을 도입해 운영 효율도 강화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롯데百 “가정식 반찬 구독하세요”

라운드 키친7과 손잡고 서비스

롯데백화점이 가정식 반찬을 정기적으로 배송하는 ‘반찬 구독 서비스’를 제공한다. 롯데백화점은 11일부터 가정식 반찬 판매 업체 ‘라운드 키친7(Round Kitchen 7)’과 손을 잡고 고객의 기호를 반영한 맞춤형 반찬을 정기적으로 배송하는 ‘구독 서비스(Subscription Service)’와 새벽배송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설 롯데백화점은 ‘라운드 키친7’과 함께 맞춤형 명절 상차림배송서비스를 시작했으며, 같은 해 2월부터 롯데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엘롯데(el lotte)’에서 28개 반찬 배달 서비스를 제공했다.

롯데백화점은 1~2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반찬을 소량으로 구매하려는 고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가정식 반찬 배달 구독 배송 서비스까지 도입했다. 기존에는 회사의 조리법대로 만든 반찬을 제공했다면 이번 서비스는 고객이 요청하는 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가정식 반찬을 배송한다.

롯데백화점의 반찬 구독 서비스는 김치류, 볶음류, 조림류, 전류, 국류 등 약 200여 개 메뉴로 구성됐다. 이용 고객에게 업체의 인기 메뉴 4~5종을 2만원에 제공해 맛을 볼 수 있게 했고, 전화상담을 통해 맛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 고객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원선 기자



동서식품

포스트 피넛버터 오즈 출시

동서식품은시리얼 ‘포스트 피넛버터 오즈(사진)’를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제품은 다섯 가지 곡물의 영양 성분을 가득 담은 동그란 ‘오즈링’에 고소하면서도 달콤한 향의 피넛버터를 더한 새로운 타입의 시리얼이다. 피넛버터 분말과 페이스트를 총 13.5% 함유해 특유의 고소하면서도 달콤한 맛을 풍부하게 즐길 수 있으며, 오즈링의 바삭한 식감으로 먹는 재미를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박인용 기자



오뚜기

프리미엄 X.O. 만두 4종

오뚜기는 프리미엄 만두 브랜드인 ‘프리미엄 X.O. (사진)’를 론칭하고 신제품 만두 4종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프리미엄 X.O.’란 ‘비범한, 놀라운’이라는 ‘eXtra Ordinary’의 의미로 최고의 재료를 아낌없이 사용하여 만든 오뚜기의 프리미엄 만두 브랜드다. ‘프리미엄 X.O.’ 만두는 믿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재료를 아낌없이 사용하여 소비자의 미각을 최고로 만족시킬 수 있도록 구현해냈다. /박인용 기자

이마트, 국민생선 갈치·고등어 몸값 낮췄다

바이어들, 산지찾아 사전물량 비축
16일까지 갈치 55%, 고등어 37% ↓

이마트가 대표 국민 생선인 고등어와 갈치 할인 행사에 나선다.

이마트는 10일부터 16일까지 국산 생 고등어(국산) 제주 은갈치(국산)를 각각 전년 대비 55%, 37% 할인한 1800원, 3780원에 판매한다.

이마트가 이처럼 가격을 낮출 수 있었던 이유는 수온 상승으로 난류성 어종인 고등어와 갈치 어획량이 크게 늘었고, 이마트 수산 바이어들이 직접 산지를 찾아다니며 사전에 물량을 비축했기 때문이다.

실제 한반도 전 해역의 평균 수온은 매년 상승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반도 전

해역의 7월 평균 수온은 2010년부터 매년 0.34도씩 증가했다.

수온이 증가하자 난류성 어종인 고등어와 갈치의 어획량도 늘어났다. 특히 고등어의 어획량이 크게 증가했다.

해양수산부 수산정보포털이 제공한 18년 1월부터 11월까지 고등어 어획량은 13만444톤으로 17년 동기간 어획량인 6만8716톤 대비 90% 가량 늘어났다.

어획량이 늘자 고등어 도매가격이 낮아졌다. 농산물유통정보(ATKAMIS)자료에 따르면 18년 고등어 연간 도매가는 17년 대비 11.5% 가량 저렴해졌다. 올해 초 고등어 도매가 역시 전년 대비 12% 가량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갈치 역시 마찬가지다. 제주 서귀포 수협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 갈치 연간 위판량은 16년 4020톤 수준이었지만

17년 7618톤, 18년에는 8421톤으로 증가했다.

마리당 판매가 역시 17년 9325원에서 18년 7523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한편 이마트는 마리당 500g 내외인 설선물 세트용 갈치 어획량이 증가함에 따라 세트가격도 전년보다 낮췄다.

이마트는 23일까지 진행되는 사전예약 행사에서 대표 갈치 선물세트인 ‘제주 은갈치(1.3kg)’를 정가 14만8000원에 작년 10% 카드 할인 행사했던 것을 올해는 20% 할인율을 10%p 높였다.

이마트 김상민 수산 바이어는 “최근 생필품들의 가격이 오르며 물가 안정을 위협하는 가운데 대표 수산물인 고등어, 갈치 등의 시세가 낮아진 만큼 이마트 판매가 역시 합리적인 가격으로 낮춰 물가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BGF리테일, 배달서비스 전국확대 나서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와 맞손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와 손잡고 배달서비스 전국 확대에 나선다.

BGF리테일이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 본사에서 ‘배달 서비스 전국 확대 등 제휴 협업 모델 구축 및 공동 사업 협력을 위한 전략적 MOU’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BGF리테일 황환조 경영기획실장과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 박해웅 부사장 등 양측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BGF리

테일은 오프라인 중심의 상권이 온라인으로 확대돼 가맹점의 신규 매출로 이어지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는 국내를 비롯해 독일, 호주 등 전세계 40여 개국 네트워크를 보유한 글로벌 최대 음식 주문 회사인 딜리버리히어로의 자회사로 국내에서는 주문배달 서비스 ‘요기요’ 등을 운영하고 있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각자의 전문성에 기반하여 배달서비스의 전국 확대는 물론 양사간 공동상품 개발 등 상호 시너지가 기대되는 여러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배달서비스는 시스템 개발 단계를 거쳐 올해 3월 런칭 후 순차적으로 5대 광역시 및 기타 지역으로 전국 확대될 계획이다. /김민서 기자 min0812@

신세계百 본점 등 11개 점포

‘스케처스X원피스’ 운동화 2700족 한정판 단독 판매

신세계백화점이신화기를 앞두고 1020세대 고객들을 위한 덕후 마케팅에 나선다. 신세계백화점은 오는 11일부터 본점, 강남점, 영등포점 등 신세계백화점 11개 점포에서 ‘스케처스X원피스’ 한정판 운동화를 백화점 단독으로 선보인다고 10일 밝혔다.

전 세계 42개국에서 총 4억 3000만 부가 팔린 일본의 인기 만화 ‘원피스’는 현재 시가 때마다 실시간 검색어에 오를 정도로 국내에서도 많은 인기를 끌고 있으며 피규어·피즐 등 ‘덕후’ 놀이로도 유명한 콘텐츠이다.

총 2700족 한정, 신세계백화점 단독으로 선보이는 ‘스케처스X원피스’ 운동화는 지난해 8개 점포에서 진행했던 오프라인 매장 수를 11개 점포로 늘려 SSG닷컴과 온·오프라인 동시에 판매한다. /신원선 기자